

3인 경합 수협중앙회장 오늘 선거... 과반 얻어야 당선

11시 송파구 수협중앙회서 투표
김진태 “소통·혁신통해 성장”
임준택 “탁월한 경제 리더십”
임추성 “조합 중앙회 조직개혁”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22일 치러진다. 지난해 회장연임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뒤늦게 나선 3명의 후보자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투표자수의 과반을 얻어야 차기 회장에 당선된다. 만약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2차투표를 해서 다득표한 후보가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회가 위탁 받아 주관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투표 당일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선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며 “차기 수협중앙회장선거에 대해 지구별·업종별·지역별 구도 등에

따라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합장들은 공약 사항을 주의 깊게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회장 후보는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62),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62),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61) 등 3명이다.

김진태 후보(현 중앙수산조정위원, 15·16·17대 부안수협조합장)는 공약사항으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수협 조성 ▲무분별한 바다생태계 파괴에 적극 대처 ▲복지 회원조합의 기틀 마련 ▲중앙회 역할 강화 ▲중앙회 혁신을 내걸었다.

임준택 후보(현 대진수산 대표, 부산농

구협회 회장, 서구장학회 상임이사)의 공약은 ▲탁월한 경제사업 리더십 ▲공적 자금 임기 내 완전 해소에 필수적인 정관계 네트워크 ▲초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 위한 최고의 인적자원 육성 역량이다.

임추성 후보(현 해수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회 조직개혁 ▲정부와의 협력 강화 ▲노량진수산시장 등 자회사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 개정안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지난달이 돼서야 선거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산됐다”며 “김임권 현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예상해 후보자 3명이 표밭을 다져놓지 못한 측면도 있어 결과를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임제한이 없었던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4대 김인권 회장부터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진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3명 모두 경쟁해 누가 당선될지는 개표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며 “투표로 선출된 차기 수협중앙회장은 내달 말쯤 취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인 조합장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자는 수협중앙회장 1명과 회원명부에 올라있는 전국의 업종 지구별 수협조합장 91명이다. 당선인은 수협임원선거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역대 수협중앙회장〉

대	회장	재임기간
1대	윤춘근	1962.04.01~1963.02.01
2대	김향진	1963.03.06~1964.03.31
3대	김재식	1964.04.02~1966.07.12
4대	노명우	1966.08.09~1968.07.04
5대	박상길	1968.07.22~1971.07.21
6대	김덕업	1971.07.22~1973.09.25
7대	장덕희	1973.10.10~1976.05.10
8-9대	남문희	1976.05.12~1979.09.25
10대	홍종문	1979.09.26~1980.07.12
11대	이동용	1980.07.12~1983.07.11
12대	이은수	1983.07.12~1986.07.11
13대	박희재	1986.07.12~1990.04.19
14대	홍종문	1990.04.20~1990.07.23
15-16대	이방호	1990.08.21~1995.04.24
17-18대	박종식	1995.05.22~2000.12.29
19대	정상욱	2001.01.27~2001.06.12
20대	차석홍	2001.07.04~2004.05.25
21대	박종식	2004.06.24~2006.12.27
22-23대	이종구	2007.01.25~2015.3.24
24대	김임권	2015.03.25~현재

【자료=수협중앙회】

KB금융 노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철회

후보자 이행상충 문제로 ‘물거품’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란에 불을 지폈던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이번엔 후보자의 이행상충 문제가 불거지면서 3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현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백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은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다.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했다.

법률상 해당 금융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KB노조는 수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후보자 결격 시비가 등을 감안해 후보 추천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금융 노조는 앞서 2017, 2018년에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바 있으며,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출 편의점 ‘Loan 25’ 브랜드 런칭 자영업자들 마이너스통장 대출 특판

케이에스넷 자회사 케이에스에이엔피



국내 선도 VAN사업자인 케이에스넷의 자회사인 케이에스에이엔피가 중금리 대출편의점 ‘론(Loan)25’ 브랜드를 런칭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에이엔피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기반의 핀테크 사업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물품대금서비스 등을 통해 약 10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이다.

케이에스에이엔피는 그동안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편의점 Loan25 브랜드를 런칭하며 건전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선보였다.

기준에 직장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품출시에 관심이 쏠린다.

단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케이에스에이엔피는 대부업 등록을 신고한 후 금융고객을 위한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는 포부 또한 밝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Loan25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8%에서 최고 연 12%의 중금리로, 저축은행보다도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임금인상 갈등에 파업위기

노조, 성명서로 이달말 파업 예고

대형사 외 회원사 회비 부담 우려



저축은행중앙회와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가 중앙회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달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해 노조의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 요구를 사측이 전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 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한 성과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노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회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회원사의 회비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높은 당기순이

익은 대부분 소수 대형사의 실적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대부분이 중소 저축은행인 상황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저축은행에게는 회비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 전체 순익 중 약 40%는 SBI·웰컴·OK·한국투자·유진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이 증가하면 중앙회 직원의 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업계의 수익이 떨어지면 중앙회 직원의 임금도 삭감될 수 있다는 발미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로서는 선불리 입장을 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전국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함에 따라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거래고객의 불편과 신뢰 추락 등 유무형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을 이용하는 회원사는 총 79개사 중 67개사로 전체 저축은행 중 약 84%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노조원 또한 직원이므로 실제 파업을 통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조 측도 파업을 원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의 입장을 최대한 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하는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의 파업으로 회원사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책임 또한 직원인 그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의 공식 성명은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KEB하나은행, 국내은행 최초 블록체인 기술 전파

KEB하나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술 개발자 및 대학생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은행 최초 블록체인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빅3블록체인 컨소시엄에(R3·EEA·Hyperledger) 모두 가입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선도은행인 KEB하나은행이 국내외 유력 컨소시엄의 기술을 소개하고 전파하고자 마련한 열린 세미나다.

세미나는 기업용 블록체인을 주제로

▲KEB하나은행이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 ▲R3 Corda 소개 및 적용사례 ▲EEA의 블록체인 기술소개 ▲하이퍼레저(Hyperledger) 활용사례 등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각 빅3 컨소시엄 소속 전·현직 대표, 이사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및 대학생들과 꾸준한 관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이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내은행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